

‘막말’ 트럼프와 상부상조...물 만난 극보수 매체들

검증 안된 정보 인터넷에 삽시간 퍼져

트럼프 ‘이슬람 포비아’ 확산기 역할

“9·11 직후 수천 명의 무슬림이 환호했다”. “오바마는 미국 태생이 아니고 무슬림이다”

미국 정치의 통념을 파괴하고 있는 ‘트럼프 현상’ 속에서 부정확한 보도나 음모론을 양산해온 미국의 일부 비주류 매체들이 ‘물 만난 고기’와 같은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쏟아내는 미검증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가 되면서 그의 주장을 삽시간 내에 인터넷 공간에 퍼뜨려주는 확산기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위성판 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자 신문에 “변두리 뉴스(fringe news)가 주류에 들어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들 비주류 온라인 언론은 음모론의 대가로 불리는 알렉스 존스가 만든 인포워즈(Infowars.com), 지난 7월 텍사스 계엄령 선포설을 확산시킨 드러지 리포트 등의 인터넷 매체들이다.

음모론의 산실로 알려진 싱크탱크인 ‘안보정책센터’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도 여기에 일조하고 있다.

극보수 성향을 보이는 매체들은 백신접종이 전염병이나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거나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론을 조장하고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이 곧 미국에서 시행된다는 식의 미검증 주장을 펴와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거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뉴스의 중심에 선 트럼프가 인터넷 공간을 지배하는 이 매체들의 보도를 ‘여과없이’ 전담하거나 인용하면서 모처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WP의 보도다.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 의혹, 즉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어서 애초부터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은 인터넷 매체인 ‘버서스’(Birthers.org)나 ‘오바마 버서스’의 보도와 맞물려 있다.



트럼프가 힐러리의 국무장관 시절을 비판한 기사를 실은 인터넷 매체 ‘인포워즈’.



오바마의 아버지는 임시 외국인 체류자 신분이었음을 주장하는 ‘버서스’.

트럼프는 무슬림 입국금지 발언이 논란을 빚자 그 근거로 안보정책센터의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이 센터는 오바마 행정부에 무슬림 형제단의 회원들이 침투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온 곳이라고 WP는 밝혔다.

트럼프와 이 매체들은 서로를 밀고 당겨주는 일종의 상부상조 관계를 맺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로서는 이 매체들이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 공간에 확대 재생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고, 주류에 밀려 뒷전에 있던 이들 매체로서는 트럼프가 자

신들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주 ‘인포워즈’ 창업자인 알렉스 존스와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 같은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존스는 인터넷 언론계의 ‘트럼프’로 알려진 인물로, 실제 트럼프는 그의 아이디어 일부만을 받아들였다고 WP는 보도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같은 매체들의 미검증 보도가 진위와 관계없이 일정정도 먹혀주고 있는 점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전한시대의 명군 문제

문제(文帝, BC 202-BC 157)의 이름은 유항으로 한고조 유방의 4남이다. 여후가 16년간 국정을 농단한 후 BC 180년 사망하자 중신 진평과 주발의 쿠데타에 힘입어 황제가 되었다. 여후 전하가 막을 내리고 유씨 왕조가 힘겹게 부활한 것이다. 이후 23년간 전하를 잘 다스려 전한의 부흥을 가져왔다. 그의 뒤를 이은 경제도 선왕의 정책을 잘 유지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황제 사기들은 이들 치세를 문경지치(文景之治)라 칭송한다.

대왕 유항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5대 황제에 등극했다. 여후가 사망하자 주발은 여후의 조카 여후에게서 군대 지휘권을 빼앗았다. 군문에 들어가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령을 시달렸다.

“여씨 편을 들 자는 오른쪽 어깨를 벗고, 유씨 편을 들 자는 왼쪽 어깨를 벗으라”는 내용이다.

쟁 등으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 우승상 주발과 좌승상 진평이 중심이 되어 중앙과 지방 곳곳에 포진한 여씨 세력을 제거하였다. 군사 임무에 정통한 주발이 군대와 대총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관리의 규율, 재정, 인사 등은 진평의 역할이 컸다. 주발이 우승상직을 그만두자 진평이 단독 재상으로 문제 초기의 내정을 아꼈다. 지모의 현상으로 불리운 진평의 내조에 힘입어 통치체제가 급속히 안정을 찾았다.

그는 은화하고 수수한 인품을 반영하여 사치를 멀리했다. 묘를 조성하는데 금은동석과 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와기만을 썼다는 일화는 그의 절박한 인품을 잘 보여준다.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농촌의 생산력을 높이고 몰자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다. 관리의 규율을 잡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제의 재상의 역할에 대한 진평의 응답에 있는 “관리들이 그 직책을 제대

어진 인품...선정 베풀며 23년 태평성대

전군이 모두 왼쪽 어깨를 벗었다. 여씨 일족이 궁중에서 주살당했음을 물론이다. 진평과 주발은 여씨 일족에게 변절한 인물이 없어 여후가 죽으면 쉽게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렸고 여후가 죽자 기습적으로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여러 유씨 왕자 가운데 그가 선택된 것은 그의 외가인 박씨 집안이 군자장자(君子長者)라는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후의 황포에 질린 중신들이 후덕한 인품의 유항을 후계자로 선정한 것이다. 그의 모친인 박부인이 고조의 총애를 받은 일화가 아주 흥미롭다. 처녀 시절 그녀는 관부인이나 조자아 등과 친하게 지냈다.

“우리중에 누가 출세하더라도 서로 잊지말기로 하자”고 언약했다. 관부인과 조자아가 유방의 후궁이 되자 유방에게 처녀시절에 한 약속을 말했다. 유방이 그녀를 가엽게 여겨 단 한번 불러 총애를 하였는데 인신을 하여 유항을 낳았다는 일화다.

황제에 취임한 문제의 최우선 과제는 왕실의 안정과 민심 수습이었다. 진시황 사후 전하는 조용한 날이 없었다. 유방이 새 왕조를 창건한 후에도 경포의 난, 환왕 신의 난, 흉노와의 전

로 수행토록 한다”는 말처럼 직분에 충실하도록 독려했다.

도치세를 절반으로 줄이고 농지세를 12년간 면제하는 등 민생 안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백성들의 노역을 대폭 줄이고 연차제와 고문형도 폐지하였다. 건실한 재정 운영으로 막대한 세계잉여금이 축적되었다. 후일 손자 한무제가 서역 정벌, 한사군 설치, 남방 경략 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흉노와 적극적 화친 정책을 추구한 것은 그의 뛰어난 업적이다. 유방은 흉노와의 평성 싸움에서 참패해 진평의 뇌물 작전 덕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흉노가 때때로 국경을 침범해 국지적인 싸움은 있었지만 대규모 침략전쟁은 없었다. 화친 제일주의로 변경 수비를 굳건히 한 덕에 흉노가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치세 23년간 전하는 잘 다스려졌다. 일반 백성은 태평성대를 만끽했다. 진시황 사후 수십년간 이어진 전쟁을 끝내 국가 전체가 휴식을 취하면서 국력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태산에 제사 지내는 봉선(封禪) 의식을 중신들이 건했으나 사양하였다. 천하백성은 사흘만 북상하려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사우디 女 첫 참정권...83년만에 여성의원 탄생

사우디아라비아가 건국한 지 83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이 탄생했다.

14일(현지시간) 제3회 사우디 지방선거 관리위원회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여성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이 부여된 12일 지방선거의 잠정 개표 결과 20명 안팎의 여성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전망이다.

하마드 사드 알오마르 지방행정부 대변인은 AP통신에 “10개 지역 선관위에서 최소 여성 후보 19명이 당선됐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16개 지역 선관위로 나뉘어 치러진 만큼 여성 당선자의 수는 20명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의원수(2106명)를 고려하면 여성 당선자는 1%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후보 6917명 중 여성 후보는 979명이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여성 당선자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沙)의 북쪽 마드라카 선거구에 출마한 여교사 살마 빈트 히자브 알오테이비를 시작으로 사우디 전국 곳곳에서 나왔다.

처음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여성 유권자의 투표 열기가 특히 뜨거웠다. 주데아 알카흐타리 선관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81.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파리 테러 한 달...꺼지지 않는 추모 불빛



프랑스 파리 테러 발생 한 달이 된 13일(현지시간) 시내 레퐁블리크 광장의 기념탑 아래에 화환, 깃발, 촛불 등이 놓여 있다. 중앙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지난날 13일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 130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총선 압승 수치, 쓰레기 청소 봉사

지난달 미얀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화 운동 기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첫 국민봉사 활동으로 쓰레기 청소에 나섰다.

14일 태국에서 발행되는 언론들에 따르면 수치 여사는 전날 자신의 선거구인 양곤 외곽 코부에서 지지자, 주민 등과 함께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였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제1야당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들도 각자의 선거구에서 쓰레

기 청소에 나섰다.

수치 여사가 지난달 8일 총선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같이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쓰레기 청소에 대해 수치 여사는 국민 보건 증진, 환경 보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NLD 당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최적 2층 상가매매

넓은 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적합

- 전용 289㎡ (2/3 현재 카페인테리어, 1/3 공실)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군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명진(전 김대중정부 청와대행정관) 010-6209-1218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